세상 젖 뗀 후 엄마 품의 차이

(시편 131:1~3)

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 젖 뗀 후 엄마 품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 젖 뗀 후 엄마 품의 차이'
저는 이 131편을 23편의 제2탄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이자 정치학자이기도 한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던 라인홀드 니버(Karl Paul Reinhold Niebuhr, 1892-1971)가 인구에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이 기도문을 편의상 "평안을 비는 기도문(The Serenity Prayer)"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문이 짧고도 감동적이기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읽는 중에도 감동이 오고 멋있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석학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문은 우리가 따라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니버 교수의 기도문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시선이 이 세상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

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분별함이 모두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느낀 바에 따르면 세상 안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6장 1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곧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죽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시선 자체가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져서 용기를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제대로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은 깨집니다. 니버 교수님의 기도대로 삶을 살 때에 실제로 평안이 주어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니버 교수님의 기도에서 언급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의 판단에 대해서 모두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과 용기와 지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어가 '나(I)'라는 점입니다.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앞서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공생애 사역을 표현하심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자를 일으켰을 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체험을 가진 상태에서는 니버 교수님의 기도문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라인홀드 니버 교수님이 윤리학자이고 정치학자였기 때문에 생겨난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저서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국가적으로 갖는 이기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대목이 그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지만 전쟁에 나갈 때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기도문이 '나'에 묶여있는 점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학자의 입장에서 갖는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과 신학생들과 교인들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무

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전제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구약성경 때부터 전제되어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직시해야만 현실적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담고 있거나 세상을 바라봐야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선시하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고 그때에 진정한 평안은 주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등지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며 할 수 없는 일도 없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모세에게 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의 보고를 통해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결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기에 해나가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며 할 수 없는 일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루어지는 일의 가능성여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통해서라도 38선을 걷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뜻이 없으시기에 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거나 없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짧고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 구절을 늘 있는 상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평안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곧 세상을 등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발을 세상에 담고 있

는 한 평안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발을 담근다’라는 것은 곧 바위까지 휩쓸고 내려오는 골짜기의 거대한 탁류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익사하기 이전에 바위에 짓눌려 죽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세상에 짓눌린 상태에서 평안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발을 뗀 상태가 곧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라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다윗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가 추구하는 정신과는 정 반대의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절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 하나이다’라는 부분을 보면 요즘 세상의 추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원대한 비전 혹은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긍정의 힘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큰일을 이루려 힘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1절 앞부분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말의 뜻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백이 축복이자 문제가 됩니다. 이 공백으로 인해서 삶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 바깥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지 않는다면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안에 발을 딛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 교만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의 도덕적 윤리적 속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함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일을 지칭합니다. 세상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살다보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눈이 오만해지고 큰 일을 꿈꾸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럴 때에 평안은 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교만과 오만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들을 많이 모아둠으로써 자신이 올라설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없는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고자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학력의 토대 위에 서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자 함입니다. 외모도 우월감의 토대가 됩니다.
교만과 오만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눈이 오만한 것은 조금 어조가 다릅니다. ‘눈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높은 기준에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립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마음의 교만은 내가 높아지려 함이고, 눈의 오만함은 남을 깎아내리려 함입니다. 결국 내가 높아진다는 효과가 나오지만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는 인간의 성향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특성상 반드시 교만과 오만이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1절의 하반부에 나오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바로 큰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일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조금 어조가 다릅니다. 큰 일은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다른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며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며 살다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꿈꾸며 인생 쫄딱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세상 안에서 마음이 머물 때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꿈꾸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두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라고 하면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신기한 말입니다. 젖먹이 아기는 젖을 먹기 위해 보채고 떼를 씁니다. 젖을 먹고 만족하면 방긋 웃습니다. 그런데 젖 뗀 아기가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있는 모습은 익숙한 것 같아도 논리적으로는 조금 어색한 장면입니다.

젖먹이가 칭얼대는 이유는 오직 젖 때문입니다. 이 아기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의 품이 아니라 젖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젖 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때에는 젖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을 좋아해서 안기는 것입니다. 엄마 품의 냄새가 좋고 엄마의 손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젖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돈 건강 장수 성공 형통 등이 젖입니다. 그 젖을 달라고 보채고, 젖을 먹겠다고 애쓰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품을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이가 젖 떼듯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실 돈 건강 형통 성공 등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진정한 평온이 임하게 되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젖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선민들은 젖 뗀 아기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젖이 아니라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아기와 같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젖을 갈망했던 그 강도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할 것이고, 건강과 장

수를 갈망했던 그 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과 승진과 성공을 갈망하던 그 열망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평온이 찾아올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배를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마음의 평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머물게 하고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아서 이루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교만과 오만의 열매일 뿐입니다.
타인을 짓밟고 깎아내려서라도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자랑할 만한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는 평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마음이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생겨서 큰 일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할 때마다 성전의 번제단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육체의 할례로 비유하였습니다. 할례를 통해 육신의 일부를 베어버리듯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이 세상의 가치를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지켜보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땅에 사는 나의 일은 하늘을 찾는 것입니다. 평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니버 교수의 기도문은 멋있지만 십자가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생명적 평안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마음이 십자가를 계속 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

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모든 자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자리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엄마 품에 안긴 젖 뗀 아이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내게 주어진 세상의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에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세상 젖 뗀 아기로서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안에 안겨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나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